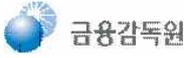


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 
	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 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833)
	금감원 기획조정국장 이 근 우(02-3145-5900)		원 희 정 부국장 (02-3145-5940)

제 목 :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 
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.

— 금융위·금감원간에 획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 —

-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일(9.2일)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\***을 가졌습니다.

\* (일시/장소) '21.9.2일 11시 /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집무실

-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, 이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“한 몸으로(One-body, One-voice)”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.**

- 이를 위해 금융위-금감원 양 기관 간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.

- 또한,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·예산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

- 아울러 금융위·금감원이 금융권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고, 그 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을 제안했습니다.

\* **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(공정성의 유지 등)**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**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청문회를 거쳐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, 금감원도 정책과 감독에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**
  - 금감원은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,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  - 또한,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,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.
- **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·금융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.**
  -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누적된 잠재리스크의 뇌관을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고,
  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임박한 가운데, 금융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위험요인 발견시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- **마지막으로,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“소통과 화합을 통해 금융발전에 기여하겠다”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,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 긴밀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.**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지각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prfsc@korea.kr	 <small>합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